

『長生殿』의 癡情

— 癡情人物 楊貴妃의 形象과 癡情의 特征

李知恩*

<목 차>

1. 서론
2. 癡情의 정의
3. 癡情人物 楊貴妃의 特征
 - 1) 아름다움
 - 2) 뛰어난 재능
4. 楊貴妃의 癡情의 特征
 - 1) 성스러운 사랑
 -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5. 결론

1. 서론

과거 中國 文人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신혼 첫날 밤 화촉을 밝히고, 금방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때(洞房華燭夜, 金榜題名時)”에 다름 아닐 것이다.¹⁾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이상적인 여인을 맞이하고 과거에 당당

* 高麗大 中文科 講師

1)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에 대해 宋代 詩人 汪洙는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나고, 타향에서 친구를 만나고, 첫날 밤 화촉을 밝히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이 오를 때.(久旱逢甘雨, 他鄉遇故知, 洞房華燭夜, 金榜掛名時.)’라 하였다. 高麗時代의 文人 止軒 李奎報 역시 ‘큰 가뭄 끝에 단비를

히 급제하는 것, 그것은 문인들의 지상과제이자 희망이었을 것이다.

才子佳人 小説과 戲曲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才子和佳人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꿈을 이루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야기는 문인들이 추구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형이다. 작품속의 남자주인공은 사회적 억압이나 주변의 냉대를 받지만 여인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차츰 변화되어 꿈을 이루기에 이르는데, 이는 문인 자신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면서 自己愛의 표현이기도 하다. 실의한 문인들은 사회에서의 실패를 작품 속 여인과의 만남과 사랑에서 보상받고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과 만족을 얻는다. 비록 이러한 위안과 만족은 찰나적이고 허무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 나타난 이상적 여인의 형상은 이상적 인격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아 형상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추구와 희망은 행복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며, 이는 癡情에 대한 숭배와 연결된다.

中國文學에 있어 癡情에 대한 숭배는 明末清初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楊貴妃의 형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남편 壽王을 버리고 시아버지 玄宗에게 몸을 맡긴 것으로도 모자라 安祿山과 사통한 음탕한 여인으로 매도되었던 楊貴妃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의 여인으로 변모한다. 또한 사치와 음행으로 인해 나라를 망하게 한 대가로 죽음조차 마땅한 일로 여겨졌던 최악의 근원은 나라를 위해 초연히 목숨을 버리고 한 나라의 재건을 위해 기여한 순국의 열녀로 다시 태어났다. 『長生殿』에서 신화의 주인공으로 변화한 그녀의 형상은 癡情의 대표적 인물로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 『長生殿』에 나타난 楊貴妃의 형상을 통해 清代 문인이 꿈꾸던 癡情人物의 특징과 그 癡情人物이 지녔던 癡情의 성질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만나고, 타향에서 친구를 만나고, 첫날 밤 등불을 밝히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걸다.(大早逢甘雨 他鄉見故人 洞房華燭夜 金榜掛長名.)라 표현한 바 있다.

2. 癡情의 정의

『長生殿』에서 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작품의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물의 삶을 판단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작자는 작품의 전체적인 개요를 밝히는 第1齣 「傳概」에서 작품의 창작목적이 바로 情에 있다고 선언한다.

解説者 : [末이 등장한다] 고금의 애정의 세계에서 문노라니 그 누가 대저 진심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정성을 버리지 않아 결국 하나가 된 부부도 있습니다. 만 리길에 떨어져 있더라도 남과 북을 왜 걱정하며, 두 사람의 마음이 어찌 생과 사를 문제시하겠습니까. 인간 세상의 남녀들 인연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우스우니, 無情하기 때문입니다. 情이란 금석을 감동시키고, 천지를 돌이키며, 태양을 비추며, 역사에 전해집니다. 신화의 충성과 자식의 효심은 모두가 情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현계서는 일찍이 「鄭風」과 「衛風」을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뜻을 따라 樂曲을 만들었습니다. 太眞外傳을 빌어 새로운 가사에 노래를 붙이니, 情일 따름입니다.²⁾ 「傳概(1)」

情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나 작자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情은 금석과 천지와 같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忠과 孝와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情을 대표하는 인물은 楊貴妃이며, 그녀의 情은 사랑의 여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 織女로부터 좋은 癡情이란 찬사를 받기에 이른다.

2) [末上] 今古情場, 問誰個眞心到底? 但果有精誠不散, 終成連理. 萬里何愁南共北, 兩心哪論生和死. 笑人問兒女悵絲棼, 無情耳. 感金石, 回天地. 昭白日, 垂青史. 看臣忠了孝, 總由情至. 先聖不曾刪鄭、衛. 吾情取義翻宮、徵. 借太眞外傳譜新詞, 情而已.

土地神 : 비록 상주를 올려 楊貴妃를 仙班에 복위시킨다 해도, 그녀는 아마도 계속 癡情을 간직할 겁니다. 다만 仙宮에 간다 해도 홀로 살아갈 것이오니, 부부가 되자던 예전의 맹세를 영원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織女 : 이는 좋은 癡情이로군요.³⁾

한국어에서 癡情이란 용어는 주로 치정사건, 치정살인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中國文學에서 癡情은 情의 한 부류이자, 情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의 것을 가리킨다. 癡情의 뜻과 그 이면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癡’라는 글자에 담긴 함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說文解字』에는 “癡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癡, 不慧也).”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段玉裁는 주석에서 “癡란 우둔하다는 뜻이다(癡者, 遲鈍之意).”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癡란 원래 지혜가 부족하거나 치둔하다는 의미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불교가 中國으로 도입되고 불교경전이 번역되면서, 癡의 함의는 더욱 풍부해졌다. 불교에서 三戒의 하나인 ‘戒癡’에서 癡가 가리키는 것은 “미혹되어 깨닫지 못하거나 미혹되어 돌아감을 잊는다(人惑而不悟, 迷而忘返).”는 의미이다. 이로써 癡의 의미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다’는 원래의 의미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六朝時代에 들어오면서 言談과 儀容의 表現을 중시하는 조류가 성행하게 되었고, 癡는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함의에서 출발하여 공명에 무심한 사람을 癡人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그 일례로 東晉의 유명한 癡人 王湛이 있다. 『世說新語』 「賞譽篇 第十七」에는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주석에 鄧粲의 『晉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德量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록 형제와 친족들조차도 그를 바보라고 여겼으나, 오직 부친 왕창만이 그를 남다르게

3) 雖則保奏他仙班再居, 他却還有癡情几許. 只恐到仙宮, 但孤處, 願永證前盟夫婦. [貼] 是兒好情癡也.

생각하였다(隱德, 人莫之知, 雖兄弟宗族, 亦以爲癡, 唯父利異焉.)” 이처럼 癡의 용어는 세상으로부터 은거하거나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人情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기에 이르렀다.⁴⁾

이처럼 癡는 人情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周汝昌은 “俗人(卑俗, 庸俗)과 대립되는 항목은 雅人이 아니라 실제로는 癡人이다(俗人(鄙俗, 庸俗)的對待品目, 不是‘雅人’, 實應是‘癡人’)”라 지적하기도 하였다.⁵⁾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때, 癡情이란 사랑밖에 모르는 상태, 세속적인 욕망이나 논리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상태, 세속의 논리에서 벗어난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癡情은 楊貴妃의 운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의 癡情은 淫慾과 風流의 주인공 玄宗을 癡情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킨다. 이제 이 楊貴妃의 형상을 분석하여 癡情의 소유자가 지니는 특징과 그 癡情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癡情人物 楊貴妃의 특징

癡情人物은 기본적으로 才子-佳人의 형상과 그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佳人是 문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여인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明末 荻岸散人の 『玉嬌梨』 第5回에서 주인공 蘇友白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佳人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才가 있는데 色이 없으면 佳人이라 할 수 없고, 色이 있는데 才가 없으면 佳인이

4) 李麗梅, 「從性別視角論『紅樓夢』女性文化的“癡情”生命境界」, 河南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年 第1期

5) 周汝昌, 『紅樓夢與中國文化』, 台北東大圖書公司, 1989年.

라 할 수 없으며, 才도 있고 色도 있지만 나 蘇友白과 한 줄기 면면히 연결된 情이 없으면 역시 나 蘇友白의 佳人이라 할 수 없다.

有才無色, 算不得佳人; 有色無才, 算不得佳人; 卽有才有色, 而與我蘇友白無一段脈脈相關之情, 亦算不得我蘇友白的佳人.⁶⁾

여기에서 문인이 꿈꾸던 이상적인 佳人은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재능을 모두 갖춘 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癡情의 주인공 楊貴妃에게도 동일한 특징이 발견된다.

1)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써, 애정작품의 주인공 佳人은 이러한 욕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佳人은 내면의 아름다움인 덕성과 재능, 외면의 아름다움인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몸매를 겸비한다.

楊貴妃가 中國을 대표하는 四大美人의 하나라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그녀가 德性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사실에는 친숙하지 않을 것이다. 『長生殿』의 楊貴妃는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겸비한 佳人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은 楊貴妃를 처음 대면한 玄宗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玄宗은 楊貴妃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玄 宗 : 근래에는 공무가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 가무와 여색에 정을 붙이고 있다. 일전에 궁녀 楊玉環을 보았더니 품성이 온화하고 자태는 수려하여, 길일을 뽑아 귀비에 책봉하려 한다.⁷⁾ 「定情(2)」

玄 宗 : 귀비는 명문의 후손이고, 덕성과 미모를 두루 겸비하였소. 이제 귀비라는 內職에 책봉하니, 짐의 마음도 몹시 흡족하오.⁸⁾ 「定情(2)」

6) 荻岸散人, 『玉嬌梨』, 沈陽:春風文藝出版社, 1981, 55쪽, 68쪽.

7) 近來機務餘閑, 寄情聲色, 昨見宮女楊玉環, 德性溫和, 豐姿秀麗, 卜茲吉日, 冊爲貴妃.

玄宗의 대사에서 '楊貴妃는 그저 아리따운 얼굴로 황제를 미혹하는 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玄宗이 楊貴妃에게 반한 이유는 외면과 내면의 아름다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楊貴妃의 연인玄宗은 楊貴妃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楊貴妃의 아름다움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玄宗 : 국토 만 리 사방으로 사랑스러운 여인을 찾아다녔으나, 그 누가 가장 사랑스러웠겠소? 아름다운 여인을 오늘날 하늘이 내게 주셨으니, 진실로 세상에 둘도 없소. 아마 황궁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귀비로 책봉되어도, 삼천 궁녀 모두 달게 양보할 것이오.⁸⁾ 『定情(2)』

玄宗은 세상의 주인이자 삼천궁녀를 독차지한 제왕이기에, 그 누구보다 많은 여인을 거느렸으며 여인을 보는 높은 안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찬상은 객관성을 지니며,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 하에 楊貴妃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런 楊貴妃의 아름다움은 화장이나 분장으로 흉내 낼 수 없는 천연적인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楊貴妃는 황제를 영접할 예를 갖추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越調過曲·祝英臺】

[楊貴妃가 거울을 마주보고 않는다]

楊貴妃 : 귀밑머리를 살짝 끌어 올리고, 쪽진 머리를 찬찬히 손질하며,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살펴보아요.

永新 : 아씨, 이 꽃 비녀를 꽂으세요.

楊貴妃 : 바퀴 비녀를 꽂고요,

念奴 : 다시 이 연지를 바르세요.

楊貴妃 : 붉은 연지를 바르고요,

永新 : 아씨, 눈썹을 그리세요.

8) 妃子世胄名家, 德容兼備. 取供內職, 深愜朕心.

9) 賢區萬里, 遍征求窈窕, 誰堪領袖嬌容? 佳麗今朝, 天付與, 端的絕世無雙. 思想, 擅寵瑤宮, 褒封玉冊, 三千粉黛總甘讓.

楊貴妃 : [눈썹을 그리며] 꼼꼼하게 다시 두 눈썹을 그려요. [일어나며] 느릿느릿, 버들가지 허리 가누기가 힘이 드네요.

念 奴 : 어머니, 아씨 꽃 꺾는 걸 깜빡했어요. [楊貴妃를 대신하여 꽃을 꺾어준다]

楊貴妃 : 앵두나무 꽃송이를 보기 좋게 꺾었어요.

永新·念奴 : [楊貴妃를 바라보며] 아씨의 이 하얗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니, 바람이 불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웁니다.

永新·念奴 : 아씨, 옷을 갈아입혀 드릴게요. [楊貴妃의 옷을 갈아입혀준다]

【前腔】 [換頭]

永新·念奴 : 사항과 난향이 나무끼는 금빛 지수 옷을 벗고, 살굿빛 비단 적삼으로 갈아입으시고요.

[楊貴妃가 걸음을 옮기면, 永新과 念奴가 楊貴妃를 바라본다]

永新·念奴 : 보아요. 步搖를 살짝살짝 흔들면서, 치맛자락을 사뿐사뿐 살랑거리는 모습.

[楊貴妃가 신발을 신는다]

永新·念奴 : 가벼운 발은 물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楊貴妃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다]

永新·念奴 : 하늘하늘 바람을 마주하니, 백 가지의 요염함.

[楊貴妃가 몸을 돌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永新·念奴 : 돌아와 거울을 마주보니, 천 가지의 아름다움.¹⁰⁾

楊貴妃의 단장은 귀밑머리 → 쪽진머리 → 꽃비녀 → 비취비녀 → 연지 → 눈썹 → 꽃장식 → 의복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무늬 섬세함의 극치란 말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섬세한 묘사가 중요한 이유는 외모를 꾸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덧입혀진 단장-외부적 요소-를 다시 벗겨 천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녀를 보는 玄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있다. 楊貴妃는 단장의 수고가 무색하

10) 【越調過曲·祝英臺】 [坐對鏡介] 把鬢輕掠，鬢細整，臨鏡眼頻睨 [老] 請娘娘貼上這花鈿 [旦] 貼了翠鈿，[貼] 再點上這胭脂。[旦] 注了紅脂，[老] 請娘娘畫眉。[旦畫眉介] 着意再描雙蛾。[旦立起介] 延俄，慢支持楊柳腰身，[貼] 呀，娘娘花兒也忘戴了。[代旦插花介] 好添上櫻桃花朵。[老、貼作看旦介] 看了這粉容嫩，只怕風兒彈破 [老、貼] 請娘娘更衣 [與旦更衣介] 【前腔】 [換頭] 飄飄、弱弱香，金綉影，更了杏衫羅。[旦步介] [老、貼看介] 你看小額步搖，輕蕩湘裙。[旦兜鞋介] 低蹴半彎凌波，停妥。[旦顧影介] [老、貼] 袅臨風，百種嬌嬌。[旦回身臨鏡介] [老貼] 還對鏡，千般婀娜。

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잠을 청한다. 잠을 자는 과정에서 楊貴妃의 화장
은 지워지고 머리는 흐트러져버린다. 이런 모습을 玄宗이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玄宗 : 일찌감치 얼굴에 분은 희미해지고, 입술에 붉은 연지 지워지고, 귀밑머
리 빠져 나와 들쭉날쭉하구나.¹¹⁾

玄宗 : 사랑스러운 그대여. 시녀가 허리를 붙잡아 일으켜도, 연약하여 서지도
안지도 못하는구나.¹²⁾ 『春睡(4)』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은 楊貴妃의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을
감퇴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玄宗은 잠에서 막 깨어난 힘없는 楊貴妃를 보고 보호본
능을 느끼며 ‘사랑스러운 그대여’라고 감탄한다. 이는 楊貴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
러움이 완벽한 단장을 통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楊貴妃는 열어진 분
과 지워진 연지와 흐트러진 살적 속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미모의 화신이자 사
랑스러운 여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아름다움은 楊貴妃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2) 뛰어난 재능

明清 才子佳人 戲曲과 小說에서 佳人들은 ‘그림’이나 ‘시’와 같은 재능을 통해 자
신의 애정을 표현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牡丹亭』을 들 수 있다. 『寫眞』에서 杜
麗娘은 그리움으로 상사병을 앓던 중, 자신의 모습을 그려 자신의 아름다움과 사랑
의 욕망을 담아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紅樓夢』에서 林黛玉은 시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賈寶玉에 대한 사랑을 기탁하였다. 『長生殿』에서 楊貴

11) [生] 早則淺淡粉容, 消褪唇朱, 掠削鬢兒軟綉

12) [生] 憐他, 侍兒扶起腰肢, 嬌怯扶難存難坐

妃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의 욕망을 담아내는 도구로 노래와 춤을 이용한다.

『長生殿』에서 楊貴妃가 더욱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형상화되는 조건은 楊貴妃의 뛰어난 재능에 있다.¹³⁾ 『長生殿』은 작곡, 노래, 춤에 관한 楊貴妃의 재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製譜(12)」, 「偷曲(14)」, 「舞盤(16)」에는 楊貴妃의 총명하고 다재 다능한 모습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자는 楊貴妃의 재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玄宗이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 霓裳羽衣曲을 楊貴妃가 만든 것으로 개조하였다.¹⁴⁾ 작품에서 霓裳羽衣曲은 楊貴妃의 재능을 표출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楊貴妃의 사랑을 완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楊貴妃는 자신이 노래를 작곡하는 목적에 대해 밝히면서, 꿈속에서 들었던 음악이 분명히 떠올라 긴 여름날을 소일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楊貴妃 : 꿈에서 밤에 달나라로 건너가, 霓裳羽衣曲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도 음절이 분명히 떠오르니, 새로운 악보로 만들며 긴 여름날을 소일하
려합니다.¹⁵⁾ 「製譜(12)」

여기에서 楊貴妃가 긴 여름날을 소일한다고 말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악보를 만드는 것에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다.

13) 재능이란 美人과 佳人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佳人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인가문 출신이 아니면 이 표현의 사용은 불가능했다. 明清 시대 문학의 경우, 실령 여성일지라도 시문에 뛰어난 재능이 없으면 佳人이라 부르지 않는다. 수사학에서 鑿은 아름답고 俗은 추하다는 은유처럼, 才의 유무는 미인을 璽과 俗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14) 『唐逸史』에는 玄宗이 중추절에 月宮에 유람을 갔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唐玄宗은 中天師 및 道士 鴻都와 함께 중추절에 달을 바라보았다. 玄宗은 문득 月宮을 유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天師는 법술을 행하였다. 세 사람은 함께 靑雲 위로 올라가 월궁에서 漫遊하였다. 그러나 궁전 앞은 수위가 심엄하여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다만 바깥에서 長安의 皇城을 바라보았다. 이 때, 문득 仙聲이 울려 퍼지니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답고 기이하며 감동적이었다. 唐玄宗은 평소에 音律에 능통하였으므로 이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 玄宗은 月宮 仙娥의 음악과 노랫소리를 떠올려 직접 음악과 가무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霓裳羽衣曲이다.

15) 【正宮引子·新荷葉】幽夢清宵度月華, 聽“霓裳羽衣”歌罷. 醒來音節記無差, 擬翻新譜消長夏.

楊貴妃 : 저 楊玉環은 머리카락을 잘라 폐하의 마음을 감동시킨 후로 더욱 더 깊은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상께서 梅妃의 驚鴻舞를 늘 칭찬하시기에, 저도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앞서려고 애쓰던 중이었습니다.¹⁶⁾ 「製譜(12)」

楊貴妃에게 있어 노래란 자신의 재능을 표출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적인 梅妃를 물리치고 사랑하는 玄宗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랑을 쟁취하고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다는 꿈, 그 無聲의 꿈은 有聲의 노래로 구체화된 것이다. 楊貴妃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쳐둔 사랑의 덫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 이른다. 玄宗은 그녀의 악보를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玄 宗 : 참으로 신기하다. 이 악보는 과인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세히 음절을 생각해보니 인간의 소유가 아니로다.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구나, 과연 曲이 고아하고도 희귀하구나. 귀비여. 그대의 절세 미모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영리한 생각은 그 누가 그대를 따를 수 있겠는가? 【玉芙蓉】이 총명함은, 上陽의 매화를 압도하는구나.¹⁷⁾ 「製譜(12)」

여기서 ‘上陽의 매화’란 上陽宮의 梅妃를 가리키는 말이다. 玄宗은 楊貴妃가 만든 악보를 본 후, 梅妃의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楊貴妃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춤의 영역에 도전한다. 楊貴妃는 자신의 생일이 되자, 자신이 고안한 비취쟁반 위에 올라가 霓裳羽衣曲의 가락에 맞추어 자신이 창작한 춤을 선보인다. 玄宗은 楊貴妃의 霓裳羽衣舞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玄 宗 : 기가 막힌 춤이었소. 빼어난 몸짓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농염한 자태가

16) 我楊玉環自從截髮感君之後，荷寵彌深，只有梅妃“驚鴻”一舞，聖上時常誇獎，思欲另制一曲，掩出其上。
17) 好奇怪，這譜連寡人也不知道，細按音節，不是人間所有，似從天下，果曲高和寡，妃子，不要說你嫋嫋絕世，只這一點靈心，有誰及得你來？【玉芙蓉】恁聰明，也堪壓倒上陽花。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소. 영락없이 빙빙 부는 바람 빙글빙글 맴도는 눈송이와 같고, 마치 훨훨 날아가는 제비 이리저리 움직이는 용과도 같으니, 진정으로 천추에 필적할 자가 없겠소. 궁녀들아, 술을 가져오너라. 짐이 귀비에게 한잔 드려야겠다.¹⁸⁾ 『舞盤(16)』

玄宗 : 내가 그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다만 이렇게 잔을 잡은 것도 만 가지의 풍류를 지니고 있어 사람의 애간장을 막히게 하는구료.¹⁹⁾ 『舞盤(16)』

楊貴妃의 노래와 춤은 風流를 주체하지 못한 채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던 玄宗의 애간장을 녹이고 그의 마음을 楊貴妃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였다.

이상으로 楊貴妃가 재능을 통해 玄宗과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 楊貴妃는 예쁜 얼굴과 성적인 매력만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후비가 아니라, 탁월한 예술적 재능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여인으로 변모되었다.

4. 楊貴妃의 癡情의 특징

앞에서 癡情의 주인공 楊貴妃가 갖춘 기본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요소를 모두 갖춘 인물은 癡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長生殿』에는 楊貴妃 외에도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이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虢國夫人과 梅妃이다. 虢國夫人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미모이며, 梅妃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재능이다. 虢國夫人의 미모는 너무나 뛰어난 것이어서,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로 玄宗을 배알한 채 玄宗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18) 妙哉! 舞也! 逸態橫生, 濃姿百出。宛若翻風回雪, 恍如飛燕游龍。眞獨擅千秋矣。宮娥每, 看酒來, 待朕與妃子把杯。

19) 俺仔細看他模樣, 只這持杯處, 有萬種風流婦人腸。

또한 梅妃는 아름다운 용모에 재능을 갖추어, 驚鴻舞라는 춤으로 玄宗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녀들도 아름다운 미모와 재능으로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작자는 그들의 사랑을 癡情이라 부르지 않는다. 또한 그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부여하였다. 虢國夫人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저버리고 한순간의 사랑에 탐닉했으며, 그 결과 처참한 결말을 맞는다. 梅妃는 비록 玄宗과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玄宗의 정무를 방해하고 국정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기에 이른다.

癡情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대상을 향한 순수하고 성스러운 사랑이며 그 사랑이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1) 성스러운 사랑 - 성애에 대한 긍정과 색욕과의 차별성

華璋은 『明清婦女之戲曲創作與批評』에서 『西廂記』나 『牡丹亭』과 마찬가지로 『長生殿』이 남녀의 성욕에 대해 노골적이고 거리낌 없이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남녀의 육체관계를 남녀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⁰⁾ 그녀의 이러한 지적은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長生殿』이 남녀 특히 부부의 성애를 긍정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작자는 玄宗과 楊貴妃의 성애를 긍정하였고, 그들이 雲雨之情을 나눈 다음날 아침의 나른함 혹은 함께 목욕을 하는 모습 등을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第4齣「春睡」에서 楊貴妃는 지난 밤 나눈 걱정적인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楊貴妃：[낮은 목소리로] 어젯밤 폐하의 총애를 받을 때, 폐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 저도 모르게 사지에 힘이 약해졌나 봐요. 억지로 일어나서 머리를 빗다가 또다시 몽롱하게 잠이 들어 버렸군요.²¹⁾ 「春睡(4)」

20) 華璋, 『明清婦女之戲曲創作與批評』,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民國2003年, 83쪽.

楊貴妃는 지난밤의 격정적인 사랑으로 인해 황제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잠이 들고 만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楊貴妃는 힘이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이 들지만, 玄宗은 건강한 몸으로 出朝했다는 사실이다.²¹⁾ 이처럼 楊貴妃는 성애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玄宗의 政事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楊貴妃의 성애가 묘사된 장면은 楊貴妃와 玄宗이 함께 목욕을 하는 장면이다. 이 광경은 楊貴妃의 하녀 永新과 念奴의 눈과 입을 통해 묘사된다.

【永新과 念奴가 함께 안을 들여다본다】

永新·念奴：【水紅花】 빈틈으로 살그머니 훑쳐보니, 아씨의 아름다운 옥체, 마치 물결 위에 떠다니는 연꽃처럼, 이슬 머금고 교태로이 광채를 희롱하는 것 같아요.

【浣溪紗】 가벼운 팔과 팔목의 더러움을 씻어내며, 부드럽게 아름다운 허리는 푸른 물결에 출렁거려요.

念奴：【望吾鄉】 노을처럼 빛나는 뼈대, 눈이 스며든 것 같은 피부.

永新：【大勝樂】 한 방울 우유가 스며든 두 개의 찻꼭지, 반 점 춘정을 삼킨 조그만 배꼽.

念奴：【傍妝臺】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붉은 수건 틈새로 은밀한 곳이 살짝 드러나 있어요. 永新 언니. 상감마마를 좀 보아요. 【解三醒】 뚝어지게 바라보면서, 【八聲甘州】 저렇게 끊임없이 웃음을 머금으시니, 바보처럼 넋이 나가셨어요.

永新·念奴：【一封書】 훑쳐보는 우리 궁녀더러 혼이 나갔다고 말하면 안돼요. 습관처럼 보시는 폐하께서도 자제하지 못하시잖아요.

永新：【白羅袍】 온천수가 마르고 닳을 때까지,

念奴：玉山을 쓸어 허물어트릴 때까지,

永新： 끊임없이 향기로운 어깨를 소리 내어 빨면서,

21) 【旦低介】夜來承寵。雨露恩濃。不覺花枝力弱。強起梳頭。却又朦朧睡去。

22) 이러한 모습은 楊貴妃가 음기를 발산하여 玄宗의 정력을 빨아들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楊貴妃가 힘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기를 玄宗에게 빼앗기거나 나누어 준 것이며, 玄宗이 당당하게 出朝한 것은 楊貴妃에게 기를 빼앗기지 않고 실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念 奴 : 끊임없이 가녀린 허리를 껴안아 주시는군요.

永 新 : 【黃鶯兒】 우리 아씨는 아무 말씀 없이 웃음을 머금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세요.

念 奴 :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月兒高】 신비로운 온천수 봄바람에 담담하게 흔들리는 모습 마치 술에 취하신 것만 같아요.

永 新 : 【排歌】 물결 따스하고, 햇빛 빛나는데, 한 쌍의 용이 희롱하면서 잔잔한 연못에서 뛰쳐나와요.

永新·念奴 : 【桂枝香】襄王이 목이 말라 陽臺 아래 쓰러지자, 마치 神女가 저녁비를 몰고 돌아오는 것 같군요.²³⁾ 「窺浴(21)」

두 궁녀의 시선은 楊貴妃의 팔목과 허리에서 시작하여 뼈대와 피부를 거쳐, 가슴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은밀한 곳으로 내려간다. 楊貴妃의 농염한 몸매가 눈앞에 펼쳐지면, 玄宗은 낮이 나간 모습으로 웃음을 머금고 楊貴妃를 애무한다. 玄宗은 楊貴妃의 어깨를 입으로 빨고 허리를 안는다. '한 쌍의 용이 희롱하면서 잔잔한 연못에서 뛰쳐나온다'는 상징적인 표현은 두 사람의 성적결합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가 주인공의 성애에만 주목한 것은 아니다. 楊貴妃는 아름다운 미색을 자랑하며 玄宗과의 성애를 즐기지만, 황비의 婦德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애를 즐겼다. 색이 德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욕으로 타락하기 쉽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성애를 즐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분에 있다. 그들은 황제와 황후의 신분이므로, 지나치게 색에 대해 탐닉한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楊貴妃의 색은 德을 겸비하였으며, 색으로 德을

23) [同作向內窺介] 【水紅花】 [合] 悄偷窺, 亭亭玉體, 宛似浮波菡萏, 含露弄嬌輝。【浣溪紗】 輕盈臂腕消香膩, 綽約腰身漾碧漪。【望吾鄉】 [老旦] 明霞骨, 沁雪肌。【大勝樂】 [貼] 一痕酥透雙蓓蕾, [老旦] 半點春藏小鸚鵡。【傍妝臺】 [貼] 愛殺紅巾幘, 私處露微微。永新姐, 你看萬歲爺呵, 【解三醒】 凝睛睇, 【八聲甘州】 恁孜孜含笑, 渾似呆癡。【一封書】 [合] 休說俺偷眼宮娥魂魄化, 則他個見慣的君王也不自持。【皂羅袍】 [老旦] 恨不把春泉翻竭, [貼] 恨不把玉山洗頰, [老旦] 不住的香肩鳴嶺, [貼] 不住的纖腰抱圍。【黃鶯兒】 [老旦] 俺娘娘無言匿笑含情對, [貼] 意怡怡, 【月兒高】 靈液春風, 淡蕩恍如醉。【排歌】 [老旦] 波光暖, 日影暉, 一雙龍戲出平池。【桂枝香】 [合] 險把個襄王渴倒陽臺下, 恰便似神女携將春雨歸。

실현하였다. 작품이 꿈꾸는 이상적인 情은 德을 수반한 色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는 德이 결여된 色의 예증이 곳곳에 제시된다. 작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일회적인 사랑을 작품에 삽입함으로써 楊貴妃의 지고지순하고 성스러운 사랑과 대비시키고 있다. 『長生殿』에는 음탕한 시선, 불륜, 성적 희롱, 남색, 절개 없음, 과도한 성색, 수음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성적 유희가 등장한다.

남성	관계	여성
安祿山	음탕한 시선	三國夫人
玄宗	불륜	虢國夫人
公子	성적 희롱, 남색	醜女
村夫	절개의 부재	장님노파
安祿山	과도한 성색	段婦人
驛官	수음, 성희롱	女工

安祿山은 음탕한 눈길로 三國夫人을 바라보고, 玄宗은 楊貴妃의 언니이자 과부의 처지인 虢國夫人과 불륜을 저지른다. 公子가 醜女를 희롱하면 醜女는 公子에게 남색을 즐기지 않는다고 반문한다. 장님노파는 남편을 여의자마자 村夫에게 부부가 될 것을 요구하며, 安祿山은 부인인 段婦人과 성색에 빠져 정무를 내팽개치고, 驛官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女工들의 몸을 더듬고 희롱한다.

楊貴妃의 성애는 이들과의 대비 속에서 더욱 성스럽고 순결한 빛을 발휘한다. 楊貴妃는 色으로써 玄宗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德으로써 玄宗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楊貴妃는 玄宗이 梅妃와의 雲雨之情에 빠져 조정에 나가지 않자 玄宗을 질책한다.

楊貴妃 : 어젯밤에는 누가 폐하를 모시고 잤나요? 어떻게 남녀의 쾌락에 빠져, 해가 삼간에 뜨도록 조정에 나가지 않으시나요? 바깥사람들은 알지도 못

한 채, 제가 변변찮은 모습으로 폐하를 잡았다고 말들 하지요. 사랑의 쾌락에 또 다른 雨雲의 소굴이 있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폐하. 빨리 조정을 돌보시옵소서. 신첩은 여기에서 폐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²⁴⁾ 『絮閣(19)』

楊貴妃가 玄宗을 질책하는 이유는 단지 玄宗이 자신을 버리고 梅妃를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楊貴妃는 玄宗이 情事에 빠져 政事를 소홀히 함을 질책하고 있다. 楊貴妃는 색으로 玄宗의 기를 빼앗거나 정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성애를 나눈 후 지친 모습을 보인 것은 楊貴妃였으며, 玄宗은 국사를 돌보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玄宗이 梅妃와 사랑을 나눈 후에는 침상에 누워 정무를 소홀히 한다. 楊貴妃는 성애로 인해 국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德으로써 色을 보완하고 있다. 그 결과 楊貴妃의 情은 德을 수반한 色, 즉 성스러운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色+德	사랑	聖
色-德	색욕	俗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 죽음, 생명과의 밀접한 연관성

癡情이나 至情을 추구하는 문학작품의 특징은 사랑이 죽음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는 점이다. 『牡丹亭』의 杜麗娘은 사랑으로 인해 죽고, 사랑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다. 『紅樓夢』의 주인공 黛玉은 사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지만 다시 태어나지는 못한다. 『長生殿』의 楊貴妃는 사랑을 위해 죽고, 癡情人物의 삶을 행복으로 물들이지만 때로는 癡情人物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24) [旦] 昨夜誰侍陛下寢來? 可怎生殺鳳友鸞交, 到日三竿猶不臨朝? 外人不知呵, 都只說嬌君王是我這庸姿劣貌, 哪知道戀歡娛, 別有個雨窟雲巢! 請陛下早出視朝, 妾在此候駕回宮者.

그렇다면 왜 사랑은 죽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는 문학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삶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한 시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이기에, 많은 시인들은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았다. 『長生殿』은 억울하게 죽은 楊貴妃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를 第47齣의 제목 「補恨」을 통해 명시하였으며, 楊貴妃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부여하였다.

『長生殿』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작품의 제목에서 잘 알 수 있다. 『長生殿』에서 楊貴妃의 사랑과 운명은 長生을 상징하는 공간 '長生殿'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楊貴妃의 생일잔치를 지낸 곳도 '長生殿'이며, 七夕을 맞이하여 楊貴妃가 玄宗과 함께 乞巧를 지낸 곳도 '長生殿'이다. 『舞盤(16)』에서의 생일잔치에는 楊貴妃를 장수를 기원하였고, 『密誓(22)』에서 乞巧를 지낼 때에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였다. 사랑의 전제조건은 생명이며, 영원한 사랑의 전제조건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玄宗과 楊貴妃의 첫 만남에서 작품의 주요 각색은 두 사람의 사랑과 장수를 네 번에 걸쳐 거듭 기원한다.

함 께 : 원하노니 아름다운 사랑이 하늘과 땅처럼 지속되기를.²⁵⁾ 「定情(2)」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장애를 맞이한다.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켜 피난을 가는 길에, 六軍의 군사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의 화근인 楊國忠을 죽인다. 이어서 그들은 楊貴妃의 목숨을 요구하면서 楊貴妃를 죽이지 않으면, 玄宗을 수행하지 않겠노라고 엄포를 놓기에 이른다. 六軍 대장 陳元禮는 楊貴妃의 무죄를 알면서도 玄宗에게 楊貴妃의 죽음을 종용하는데, 이는 楊貴妃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를 대변해준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楊貴妃가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인간에게 있어 삶에 대한 욕망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

25) [台] 惟愿取恩情美满, 地久天长

그러나 楊貴妃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막다른 상황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다.

楊貴妃 : 신첩은 폐하의 깊은 은혜를 입었으니, 죽어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태가 위급하니 원컨대 自盡을 하사하시어 군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주십시오. 폐하께서 안전하게 촉에 도착하신다면, 신첩은 죽어도 산 것과 같습니다. 추측컨대 앞으로 군인들의 소란을 해결할 계책이 없을 터이니, 남은 생을 기꺼이 끝내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은 생명을 기꺼이 끝내기를 원하옵나이다.²⁶⁾ 「埋玉(25)」

楊貴妃의 대사에서, 楊貴妃가 자신의 생명으로 玄宗에게 받은 사랑을 갚으려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폐하께서 안전하게 촉에 도착하신다면, 신첩은 죽어도 산 것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玄宗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楊貴妃는 자살을 준비하기 위해 불당을 찾아가 예불을 드린 후, 高力士에게 玄宗이 자신에게 선물로 준 금채와 전합을 건네주고 통곡한다.

楊貴妃 : [곡하며] 애간장이 끊어지듯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군요. 삼과 같은 이 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²⁷⁾ 「埋玉(25)」

이처럼 자살을 이미 결심한 楊貴妃에게도 죽음은 달콤하거나 쉽거나 녹녹한 것은 아니었다. 애간장이 끊어지고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은 심정, 말로 다할 수 없는 원망, 楊貴妃는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주었던 玄宗의 사랑에 감사한다.

楊貴妃 : 아이고, 아아, 이 한 그루의 배나무가 이 楊玉環이 생을 마감할 곳으로군요.

26) 臣妾受皇上深恩, 殺身難報. 今事勢危急, 望賜自盡, 以定軍心. 陛下得安穩至蜀, 妾雖死猶生也. 算將來無計解軍嘩, 殘生願甘罷, 殘生願甘罷!

27) [巨哭介] 斷腸痛殺, 說不盡恨如麻.

[허리춤에서 흰 명주를 풀고, 절을 한다] 신첩 楊玉環은 성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후론 다시는 뵈 수 없겠지요.

[고력사가 운다]

[楊貴妃가 울면서 목을 맨다]

楊貴妃 : 나의 폐하이시여, 저의 이 한 목숨은 죽어 황천 아래에 있을 것이지만,
저의 이 영혼만은 폐하의 곁에 있겠습니다.²⁸⁾ 「埋玉(25)」

그녀의 독백에서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玄宗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玄宗을 향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죽음의 순간, 楊貴妃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지만 결코 玄宗을 원망하지 않는다. 楊貴妃는 자신의 영혼만은 玄宗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한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玄宗이 위기에 처한다는 현실,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른여덟의 꽃다운 목숨을 한줄 명주에 실어 저승으로 보낸다. 楊貴妃가 죽은 후 高力士는 그 사실을 玄宗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고력사 : 폐하께 아뢰옵나이다. 아씨께서는 歸天하셨습니다.²⁹⁾ 「埋玉(25)」

여기서 高力士는 楊貴妃의 죽음을 죽었다[死]라는 말로 표현하지도 않고, 하직하셨다[薨]라는 말로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는 歸天, 즉 하늘로 돌아갔다는 말로 楊貴妃의 죽음을 대신한다. 물론 歸天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죽음과 상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楊貴妃의 사후세계와 장래를 암시해준다. 이는 楊貴妃가 음울한 저승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자, 그녀의 죽음을 승화한 표현이다. 楊貴妃는 자살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잃는 대신,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세상에 남겨주었다. 楊貴妃가 자신의 생명을 버린 보상은 컸다. 그리움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움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녀

28) 唉, 罷, 罷, 這一株梨樹, 是我楊玉環結果之處了. [作腰間解出白練, 拜介] 臣妾楊玉環, 叩謝聖恩. 從今再不得相見了. [丑泣介] [且作哭聲介] 我那皇上啊, 我一命兒便死在黃泉下, 一靈兒只傍着黃旗下.

29) 啓萬歲爺, 楊娘娘歸天了.

에 대한 玄宗의 사랑은 확실히 楊貴妃의 사후에 더욱 간절해졌다고 할 수 있다. 楊貴妃는 죽기 이전에도 玄宗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癡情의 소유자였다. 한편 楊貴妃가 살아있을 때에 오히려 薄情했던 玄宗은 楊貴妃의 죽음을 겪은 후 癡情의 소유자로 변화한다. 玄宗의 사랑을 불신했던 직녀도 결국 그의 사랑을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

織女：(玄宗은) 저쪽 인간 세상에서 이별을 가슴 아파하고, (楊貴妃는) 이쪽 신선의 세상에서 깊은 정을 그리워하는군요. 두 사람의 癡情이 이처럼 대단하군요. 두 사람의 癡情이 이토록 대단하군요. 나는 서로의 정성을 천상의 궁궐에 알리겠어요. 한을 갚아주고 근심을 매워주어 만고에 흠이 없게 해주겠어요.³⁰⁾ 「補恨(47)」

楊貴妃는 죽음으로써 癡情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薄情과 風流의 주인공 玄宗을 癡情의 주인공으로 변모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楊貴妃의 죽음으로 당나라는 재건의 기쁨을 맛본다.

土地神：그날 소란스레 변란을 일으킨 우림군은 驛庭의 사방을 에웠습니다.慷慨한 佳人이 난을 당해 죽음을 쉬이 여기지 않았다면, 어찌 무사함을 보증할 수 있었을까요. 군왕을 호위하며 西川 길로 향하니, 온 천하의 인심이 기뻐 복종할 수 있게 하였지요. 오늘날 중흥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이 皇圖를 재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³¹⁾ 「神訴(33)」

楊貴妃의 자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 낸 최고의 의미를 지닌다. 楊貴妃는 이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薄情과 風流의 주인공 玄宗 역시 癡情의 주인공으로 변모한다. 결국 두 사람

30) 那壁廂人問痛絕，這壁廂仙家念熱：兩下癡情恁著，癡情恁著。我把彼此精誠，上請天關，補恨填愁，萬古無缺。

31) 當日催歸鑼鐸，激變羽林徒，把驛庭四面來圍住。若不是慷慨佳人將難輕赴，怎能夠保無虞，扈君王直向西川路，使善天下人心悅服。今日裏中興重踏，兀的不是再造了這皇圖。

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선의 몸으로 月宮에서 재회하여 忉利天에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玄宗·楊貴妃 : 신선은 본래 情이 많아서, 봉래산 멀리 있어도 情으로 통한답니다. 사랑의 뿌리는 역겹이 지나도 죽음이 없으니, 결국은 끝내 함께 만나게 되지요. 진세에서의 인연은 고생스러웠지만, 忉利天에서의 情은 영원할 것예요.³²⁾ 『重圓(50)』

楊貴妃의 죽음은 비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랑에 위한 최상의 선택이자,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에 꼭 거쳐야하는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5. 결론

사랑과 죽음에 대한 화두는 곧 삶에 대한 화두이며, 그것은 자유에 대한 화두와 연결된다. 인간의 유한한 생명은 인류에게 있어 해결불능의 난제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인간은,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문학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長生殿』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사랑과 삶에 대한 무한한 추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작품과 차별성을 가지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채를 발휘하고 있다.

작자 洪昇이 『長生殿』의 楊貴妃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하는 중요한 덕목은 인간사이의 情이다. 이민족의 침입, 정치적 혼란, 자유의 박탈로 인해 당시 사회에는 情이 사라져가고 유토피아의 세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無

32) 神仙本是多情種，蓬山遠，有情通。情根曆劫無生死，看到底終相共。塵緣倥傯，忉利有天情更永。

情의 시대에 문학작품을 통해서라도 인간적 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왜곡된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情이 소중함은 『長生殿』에서 楊貴妃가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역사는 楊貴妃가 극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을 강요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長生殿』은 楊貴妃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으로 칭송하고 있다. 『長生殿』에는 이별과 생사를 초월하며 사랑을 이루려는 楊貴妃의 치열한 삶에 대한 열정과 고귀한 사랑의 정신이 비장하게 표현되어 있다. 죽음의 이야기는 곧 삶의 이야기이며 곧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長生殿』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랑을 통한 유한한 삶의 극복이자, 人神의 결합이다. 人神의 결합은 女神 楊貴妃가 人間 玄宗과 결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 楊貴妃가 여신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작자는 사랑을 위해 죽은 楊貴妃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楊貴妃와 유한한 생명을 살 수 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을 위로하고 있다.

<參考文獻>

- 荻岸散人, 『玉嬌梨』, 沈陽春風文藝出版社, 1981年.
 周汝昌, 『紅樓夢與中國文化』, 臺北東大圖書公司, 1989年.
 華 瑋, 『明清婦女之戲曲創作與批評』, 臺北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民92[2003]年.
 李知恩, 『長生殿의 楊貴妃 形象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論文, 2006年.
 郭英德, 「至情人性的崇拜」, 『求是學刊』, 總第28卷 2001年 3月.
 李豔梅, 「從性別視角論『紅樓夢』女性文化的“癡情”生命境界」, 河南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年 第1期

<中文提要>

從《長恨歌》、《長恨歌傳》到《梧桐雨》再到《長生殿》，楊貴妃從一個禍國尤物演變為深明大義的癡情女子。洪昇的《長生殿》是中國文學史上最傑出的一部夫妻愛情悲劇，在文學史上有著特殊的地位。在《長生殿》裏的楊玉環的愛情，終於成為於史有據但又永恆的中國第一愛情範式。本文從楊貴妃在《長生殿》裏的形象入手，探討這個文學形象的特點。

關鍵詞：情、癡情、長生殿、楊貴妃、佳人